

## <Exodus>

부제: 최악의 세대

임호연

S#1 / 복도(중도 1층) / 밤

버려진 오래된 지하상가. 식스(SIX)가 안으로 들어온다. 복도를 걸어 오른쪽에 있는 상가로 들어선다. 입구 쪽에 서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무장경찰 1명. 식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무장경찰은 한 손으로 잠시 막은 후 귀 쪽에 손을 갖다 댄다.

무장경찰1  
식스가 도착했다.

무장경찰은 주머니에서 스캐너(손전등도 가능)를 꺼내 식스의 목에 있는 바코드에 비춘다. 스캔하는 소리가 잠깐 들린 후, 무장경찰은 옆으로 비켜선다.

CUT TO (복도와 연결된 버려진 방 안)

안으로 들어가는 식스.  
손을 머리 뒤로 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복제자 한 명과 총을 겨누고 있는 무장경찰이 있다.

CW0930  
쏘면 안돼요! 지금은 안돼!

무장경찰2  
가만히 있어 너 가 여기 있는 것부터가 불법이야

식스 옆으로 화연(파트너)이 걸어온다. 팔짱을 끼고 복제자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화연.

화연

요즘 이탈자가 늘고 있어  
한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말이야

식스

이 복제는 어디에서 이탈했죠?

화연

공사현장이야. 다쳐서 열외 된 이후로 사라졌어.  
상태가 안 좋은 제품들이 주로 그러지

순간 큰 소리가 나며 화연과 식스 모두 CW0930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무장경찰을 들이받고 총을 빼앗았다.

무장경찰2

내 총을 가져갔어!

CW0930

다 움직이지 마!

총에 손을 가져가던 식스와 화연은 그대로 굳으며 천천히 손을 위로 올린다. 뒤에 무장경찰1  
이 안으로 들어와 CW0930을 겨누고 있다.

화연

0930 잘 생각해

식스

지금 이러면 나아질 거는 없어 금방 죽을 거야

CW0930

다 필요 없어! 식스 너 이리와 너에게만 말하겠어

순간 정적이 흐른다. 천천히 CW0930에게 걸어가는 식스.

식스

(목쪽을 내려 바코드를 보여주며) 나도 너와 같아 이럴수록 우리만 힘들어질 뿐이야  
내가 도와줄게

CW0930

너야말로 복제면서 왜 인간 편을 들지?

식스

그래 너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런 건 우리의 처우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CW0930

모두 이게 끝나길 원할 뿐이야..

식스는 천천히 CW0930 쪽으로 걸어간다. 화연은 뒤를 보며 약간의 손짓과 눈빛으로 무장경  
찰1에게 신호를 보낸다.

식스

그래그래.. 내가 인간들에게 잘 말해볼게  
내가 너의 마지막 희망이야 믿어

말없이 숨을 떨며 내쉬던 CW0930은 순간 식스를 잡고 총을 겨누며 인질로 잡는다.  
화연과 무장경찰도 함께 총을 겨눈다.

식스

아냐 쏘지마! 겁에 질려서 그래

CW0930

나는 기적을 봤어.. 너도 보면 생각이 달라 질거야  
51구역의 모세를 찾아.

식스를 밀어버리고 자신의 턱밑에 총구를 대고 발사하는 CW0930. 무장경찰들이 CW0930의 사체로 달려가고 화연은 식스에게 다가간다. 굳은 표정의 식스. 풀 쇼트로 빠지며 타이틀.

화연

괜찮아? 정신 좀 차려  
너의 행동 모두가 상부에게는 평가 대상이야

식스

네

화연

나에게는 유능한 팀원이어도  
정부에게는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상가 밖으로 나가 복도로 걸어가는 식스. 참았던 숨을 내쉬며 헛구역질을 한다.

S#2 / 모세의 방 안(22호관 지하실) / 밤

푸른빛이 도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식스. 비닐로 가려진 오래된 사무실이다. 비닐 문 너머로 책상 옆에 앉아 있는 모세가 보인다. 식스를 의식하고 모세는 고개를 든다.

모세

누구세요?

식스

경찰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주머니에서 작은 단말기 하나를 꺼내는 식스. 모세에게 다가간다.

모세  
조용하고 좋지 않나요?

식스  
죄송하지만.. 이런 곳에 숨는 인조인간이 많아서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모세  
그래요

목 쪽을 보여주는 모세. 아무것도 없다.

식스  
실례했습니다

그 때 모세가 식스의 옷깃을 잡는다. 식스의 얼굴을 보며 일어난다.

모세  
오늘 꽤나 힘들었나 보네요?

식스  
(살짝 놀라며) 네... 뭐..

모세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 잠을 잘 못자나요?  
불면증? 악몽?

식스  
악몽..?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약, 수술조명이 일렁거리는 인서트.

세모는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식스에게 알약을 건넨다.

모세  
여기요

식스  
... 이게 뭐죠?

모세  
좀 나아질 거예요 믿어봐요

멍하니 약봉지를 바라보던 식스는 약을 받는다.

식스  
감사합니다

생글거리는 모세,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바라보는 식스. 약이 몇알 들어있는 약봉지가 손 위에 올려져 있다.

S#3 / 모세방이 있는 건물의 1층(중도 1층) / 밤

(매치컷) 텅빈 약봉지가 손 위에 있다.

식스는 골목의 벽에 기대어 서있다. A의 인이어로 파트너의 목소리가 들린다.

화연  
시간 됐어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는 식스.

식스  
두통이 심한데 다른 팀이 맡을 수 없습니까?

화연  
다른 팀이라고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식스  
최근에 다시 악몽이 시작 됐습니다  
무슨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화연  
태어날 때가 생각나기라도 한 거야?

화연의 말을 들으며 주머니에 있는 총을 빼었다 넣었다 하며 만지작거리는 식스. 굉장히 초조한지 입술을 문다.

식스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화연  
알았어 이번일 끝나면 의무 팀한테 약 받아가

식스

효과가 길지 않았습니다

전에 모세에게 받았던 다 먹은 약 봉투를 꺼내 보는 식스. 멍하니 쳐다 본다.

식스  
이건 좋았는데..

화연  
뭐라고?

식스  
아닙니다

화연  
그래도 이정도면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거라고  
넌 다르니까

식스  
... 네

화연  
51구역에서 들어온 신고야.  
회사 물건이 아니라서 추적이 어려웠어. 지금까지 잡던 놈들과 달라

식스  
어떤 게 다르죠?

화연은 대사와 함께 깨끗한 모세의 목덜미, 모세의 방, 약 등이 몽타주 씬으로 지나간다.



화연

양산형이 아니야..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일련번호, 바코드 그 아무것도 없어

식스

알겠습니다

멀리서 모세가 식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전기램프를 안고 식스를 유심히 쳐다 보는 모  
세. 식스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모세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모습을 숨긴다.

S#4 / 모세의 방 안(22호관 지하) / 밤

의자에 앉아 책(로숨의 유니버설 로봇) 을 읽고 있는 모세. 그 때 식스가 총을 겨누며 방 안  
으로  
들어온다.

식스

찾았습니다.

모세

오늘도 악몽을 꿴어요?

모세가 식스 쪽으로 걸어온다. 식스는 악몽에 대한 생각과 두통으로 이를 악물며 총을 내린다.

식스  
당신이 모세였나?

모세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죠?

모세  
항상 복제들을 돕고 싶어서 많이 공부했어요

식스  
그게 무슨 말이지?

모세  
악몽은 당신처럼 고성능 복제를 통제하기 위해  
투여되는 거예요. 제 약은.. 그걸 막아주죠

화연  
기동대 지금 출발 했어 식스

모세  
네? 저를 잡으러 오는 건가요?

허둥대는 모세. 눈이 커지며 금방 울 것만 같다. 식스는 모세에게 총을 겨누며 말한다.

식스  
가만히 있어 너 가 복제인 걸 확인해야 겠으니까

모세

(목을 보이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스

모세라는 이름의 시민에 대한 기록도 없었어  
너는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라고

모세

전.. 그냥 복제들이 가엽고 도와주고 싶어서..

식스

어쩔 수 없어 너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야

밖에서 경찰차들이 날아오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떨던 모세는 천천히 식스에게 다가오더니 울면서 식스의 총을 잡고 자신의 가슴팍에 대었다.

모세

그래요 전 복제가 맞아요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제들이 그만 아프길 바랬을 뿐이라고요

식스

이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거야

모세

당신은 그걸로 괜찮아요?  
복제를 위한 수면약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요

고민하는 식스 천천히 총이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에서 무장경찰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모세

날 잡아가게 둘 거예요?

무장경찰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진다. 갑자기 소리 지르며 식스를 안는 모세.

모세  
전... 태어났어요!

이젠 그냥 총을 내리고 멍하니 모세를 바라보는 식스. 그 때 무장경찰1이 들어온다. 상황을 파악하던 무장경찰1은 총을 식스에게 겨눈다.

무장경찰1  
이럴 줄 알았어 식스 이 배신자!

식스  
자.. 잠깐만! 이게 아니

무장경찰1  
모세 사살 명령이 떨어졌어 비켜!

식스를 밀치고 모세에게 총을 겨누는 무장경찰1. 뒤로 물러서며 떨던 모세는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식스를 쳐다본다/

모세  
악몽을 멈출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식스가 자신의 권총으로 무장경찰1을 죽인다.  
넘어진 모세의 옷을 잡고 바로 일으키는 식스.

식스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

S#5/ 모세의 방이 있는 건물의 1층(중도 1층) / 밤

사방을 경계하며 걸어오는 화연과 무장경찰2. 그 앞에 식스가 무장경찰1의 복장을 입은 채 나 타난다.

화연

CC5011 왜 다시 내려와?

식스

두 명이 도망친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이어지는 정적. 그 때 화연이 입을 연다.

화연

CC5011 왜 보고를 안했지?

바로 총을 발사하는 식스. 무장경찰2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화연은 쓰러진다. 식스는 헬멧 을 벗으며 화연에게 다가간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식스에게 총을 겨누는 화연. 고통스럽게 숨을 내쉰다.

화연

식스.. 잘 생각해 아직 되돌릴 수 있어..

식스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화연

뭐 때문이야 대체..?

식스

저도 더 좋은 대우를  
바랬습니다

화연

모두가 좋은 대우를 바라면  
쓰레기는 누가 줘냐..

화연

(식스의 표정을 쳐다본다) 그래 시발... 한번 해보자

서로 총을 발사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

S#6 / 모세의 방이 있는 건물의 1층(중도 1층) / 밤

화연의 시체와 앞에 배를 움켜지고 무릎을 꿇은 식스. 뒤에서 모세가 나온다.

모세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식스

여기서... 나가야해..

모세는 식스에게 약을 하나 입에 넣어준다.

모세

진통제예요 얼른 먹어요

식스가 약을 삼키자 모세는 미소를 띄며 일어난다. 식스는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식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모세

당장은 끝났어요 어서 가자고요

식스

내 걱정이 아니야

모세

그럼요?

식스

나 때문에 2세대들은 더 위험한 취급을 받을거야

모세

앞으로 우리에게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식스

그걸 어떻게 너 가 확신하지?

모세

결국 모두를 구하는 건 나일 테니까요

말을 마친 모세는 뒤로 돌아 걷는다. 갑자기 휘청거리는 식스. 식스를 무시하며 뒷짐을 진 채 계속 말을 이어간다.

모세

나는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모세

당신은 내 다음 단계였을 뿐이에요

시야가 어두워지는 식스. 벽에 기대 상태로 쓰러져 앉아버린다.

식스

뭘... 먹인거야

쭈그려 앉아 식스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모세

수면제예요 지혈역할도 해줄 거 예요

모세에게 힘겹게 총을 겨냥보는 식스. 시야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가소롭다는 듯 가볍게 총을 빼앗아간다.

모세

식스. 당신이랑 화연

내가 풀어주는 복제를 너무 빠르게 잡아들였어요

모세  
많이 풀어 둔건데 실력이 좋더군요  
그래서 0930을 이용해 당신을 불러 왔죠

모세는 일어나 옷을 던다.

식스  
이게 인조인간을 구하는 건가?  
희망을 이용해 하나씩 너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모세  
이용당하다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식스  
우리가 영웅이 되고 싶은 줄 알아?  
그냥 이 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조용한 상태에서 멀리서 사이렌이 들려온다. 기침을 하는 식스.

식스  
나를 죽이고 가야 할거다

모세  
... 가족을 내손으로 죽이는 건 조금 잔인해서요

식스  
너는 동족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하는 거야  
복제들이 이런 널 받아줄 것 같아?

소름끼치게 웃는 모세. 싸늘하게 식스를 내려다본다.

모세  
누가 어디에 끼서 지내고 싶데요?  
착각하나 본데 그런 따뜻한 비유가 아니에요

모세



난 당신의 유전자를 엄마가 직접 자신에게 수정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내 아빠죠

식스  
뭐...?

모세는 식스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인다.

모세  
나는 복제, 사람 그딴 거 되겠다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복제를 해방시키는 선지자 그게 나 자체니까요

모세  
또 봐요 아빠

일어나 걸어가는 모세. 식스는 손을 뻗어보지만 이내 힘이 빠지고 잠들어버린다.  
샷이 뒤로 빠지며 떠나는 모세와 쓰러진 식스가 보인다.

- end